
2019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 인문사회계열 I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6.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7.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8.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9.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 놓으십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시자 성명 _____(서명)



CHUNG-ANG UNIVERSITY

[인문사회계열 I]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데서 오시는 길입니까?”

“흥,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회사(동척)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니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종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어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중략]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림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별이를 구할 겸 구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뭔기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펍 변했겠지요.”

“변하고 무어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앓더마.”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던 말씀이오?”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즐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오?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오?”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뚝뚝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혈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오?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오?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굶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뚝뚝히 본 듯싶었다.

(나) 시골을 다녀오되 성묘가 목적이기는 근년으로 드문 일이었다. 세모(한 해가 끝날 무렵)가 되면 한두 군데서 들어오던 세찬(연말에 선사하는 물건)을 놓고 으레건 꾸중이시던 할아버지 말씀이 자주 되살아나 마음 한 켠이 걸리지 않은 바도 아니었지만, 시절이 이러매 신정 연휴를 빌미할 수밖에

없음을 달리 어찌라 하며 견딘 거였다. 그러나 할아버지한테 결례(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나 자신에게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아주 어려서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가문을 지킨 모든 선인 조상들의 심상은 오로지 단 한 분, 할아버지 그분의 인상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받은 사랑이며 가는 정으로야 어찌 어머니 위에 다시 있다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마는, 그럼에도 삼가 할아버지 한 분만으로 조상의 넋을 가늠하되, 당신 생전에 받은 가르침이야말로 진실로 받들고 싶도록 값지게 여겨지는 터임에, 거듭 할아버지의 존재와 추억의 조각들을 모든 것의 으뜸으로 믿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한내읍에 닿았을 때는 이미 세 시도 겨워 머잖아 해거름을 만나게 될 그런 어름이었다. 겨울비를 맞으며 고향을 찾아보기도 난생처음인데다 정 두고 떠났던 옛 산천들이 돌아보이자, 나는 설레기 시작한 가슴을 부접할 길이 없었다.

나는 한동안 두 눈을 지릅뜨고 빗발 무늬가 잦아 가던 창가에 서서, 뒷동산 부엉재를 감싸며 돌아가는 갈머리 부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들뜬 것과는 별도로 정말 썰렁하고 울적한 기분이었다.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건만, 옛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던 것이다. 옛 모습으로 남아난 것이 저토록 귀할 수 있을까.

그중에서도 맨 먼저 가슴을 후려친 것은 왕소나무가 사라져 버린 사실이었다. 분명 왕소나무가 서 있던 자리엔 외양간만 한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 가게 굴뚝만이 꼴불견으로 뻗질러 서 있던 것이다.

그 왕소나무 잎새에 누령물이 들고 가지에 삭정이가 끼는 걸 보며 고향을 뜨고 십삼 년 만이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긴 했지만, 언제 베어다 썬 것인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현장을 목격하니 오장에서 부레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사백여 년에 걸친 그 허구한 풍상을 다 부대껴 내고도 어느 솔보다 푸르던, 십장생의 으뜸다운 풍모로 마을을 지켜 온 왕소나무가 아니었던가. 내가 일곱 살 나 천자문을 떼고 책씻이도 마친 어느 여름날 해설핀 석양으로 잊지 않고 있지만, 나는 갯가 제방 독까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온 마을을 쓸어 삼킬 듯이 쳐들어오던 바다 밀물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이젠 완전히 타락한 동네구나—. 나는 은연중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마을의 주인(왕소나무)이 세상 뜬 지 오래라니 오죽해졌으랴 싶기도 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더욱이 피서지로 한몫해 온 탓에, 해수욕장이 개장된 여름이면 밤낮 기적 소리가 잘 틈 없던 철로 가에 서서, 그 솔한 소음과 매연을 마시다 지쳐, 영물의 예우도 내던지고 고사해 버린 왕소나무의 운명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가슴이 쓰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실향민. 나는 어느덧 실향민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을 덜어 버릴 수가 없었다. 고향이랬자 무덤들밖에 남겨 둔 게 없던 터라 어차피 무심하게 여겨 온 셈이긴 했지만, 막상 퇴락해 버린 고향 풍경을 대하니, 나 자신이 그토록 처연하고 험험(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느낌)하며 외로울 수가 없던 것이다.

(다) 우리 부모님은 이민 1세대로, 나는 백인 마을에서 자랐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또래 녀석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다. 사람들은 곧잘 물었다.

“웨어 아 유 프롬(Where are you from)?”

내 대답은 늘 똑같았다. “루이지애나, 내 고향은 루이지애나예요.”

물론 그건 사람들이 예상한 답변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냐. 중국이나 일본 어디서 왔느냐는 말이지.”

그 두 나라 사이에 낀 반도국을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았다.

일곱 살 때 나는 처음 한국에 가 보았다. 가방은 무거웠고 한국어도 서툴렀지만 이방인이라는 느

꿈은 없었다. 순진하게도 나는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믿었다.

어디를 가도 검은 머리였다. 쌍꺼풀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느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아시아인'은 없었다. 사람들은 내게 "눈이 크다"거나 "작고 말랐다"라고 말했다. 겨우 두 달 동안이었지만 한국에서 내가 받은 느낌은 몇 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느끼고 기억하게 해 주었다.

내가 다시 한국에 간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을 앞둔 여름이었다. 나는 금세 사람들이 예전만큼 내게 관대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 부모님은 화가 나서 내게 전화를 거셨다. 내가 버릇없게 굴었기 때문이다. 너무 솔직한 질문과 서양식 사고방식이 친척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나는 삼촌께 나한테 화가 나셨느냐고 여쭙었다.

삼촌은 "아니다. 너한테 화가 난 건 아니야. 단지 널 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분명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한국말로 미국 애들 생각을 말하는 건 이상한 일이니까. 넌 한국 사람이 아니란다. 우리말을 할 줄 아는 미국인이지."라고 답하셨다.

충격이었다. 미국에 있을 때처럼 한국에서도 나는 이방인이었다.

(라)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사방의 돌레)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찌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어디루 가려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중략]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불도저)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두.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뭇 땀에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마)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오디세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 지중해를 표류하게 된다. 고국 이타케 섬을 떠난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는데, 그는 여전히 여신 칼립소의 섬에 억류당한 상태다. 오디세우스는 신들의 도움으로 칼립소의 섬을 떠나 피아아케스 섬의 알키노오스 왕의 궁전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랑에 휩쓸리고, 괴물과 마녀를 만나는 등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잃게 된 사정을 이야기한다.

먼저 내 이름을 말씀드리겠소이다. 그대들도 내 이름을 알도록, 나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올시다! 나는 온갖 지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내 명성은 이미 하늘에 닿았소.

멀리서도 잘 보이는 이타케가 내 고향이오. 그곳에는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소. 앞이 바람에 흔들리는 네리톤 말이오.

이타케는 야트막하게 그리고 서쪽으로 맨 위에 자리 잡고 있고, 이들 다른 섬들은 새벽과 태양을 향해 떨어져 있지요.

이타케는 바위투성이의 섬이지만, 젊은이들의 좋은 유모(乳母)지요.

나로서는 자기 나라보다 달콤한 것은 달리 아무것도 볼 수 없소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칼립소는 나를 남편으로 삼으려고 자신의 속이 빈 동굴들 안에 나를 붙들어 두려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아이아이에 섬의 교활한 키르케도 나를

남편으로 삼기를 열망하며, 자신의 궁전에 나를 붙들어 두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들도 내 가슴속 마음을 설득할 수는 없었소.

이렇듯 누군가가 부모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낮선 나라의 풍요한 집에서 산다 해도,

고향 땅과 부모보다 더 달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법이랴오.

자, 나는 그대에게 내가 트로이를 떠났을 때 제우스께서

내게 지우셨던 고난에 찬 귀향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소이다.

(바) 공간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생존 터전이며, 인간의 의식은 공간에 의존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에 상응하는 저마다의 고유한 자리와 위치와 공간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집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집은 인간다운 삶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집은 자신의 세계를 질서 있게 하는 하나의 중심이다. 곧, 인간은 집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바슐라르는 “집은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최초의 세계이다.”라고 하며, 집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기본 바탕이라고 보았다. 또한, 집은 노동과 노력을 기울이는 외적 공간에서 돌아와서 어머니의 품처럼 휴식과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내적 공간이다. 즉,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그러므로 하이데거의 말처럼 집의 실존적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은 인간의 위기, 즉 본래적 의미의 거주 공간으로서의 ‘고향의 상실’을 뜻한다.

(사) 고갱은 프랑스 파리에서 증권 거래업자로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예술가로서의 삶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관에 부딪혔지만, 가난한 시절에 만난 고흐와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생활하면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잦은 다툼으로 결국 3개월 만에 고갱은 고흐의 곁을 떠났다.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이 결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고흐와 헤어진 고갱은 강한 원색이 두드러진 상징주의 미술을 시도해 나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근대화된 서구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고향 프랑스를 떠나 홀연히 남태평양의 타히티로 길을 떠났다. ‘이아 오라나 마리아’는 고갱이 타히티에서 그린 작품으로, 이는 타히티 원주민 말로 ‘나는 마리아를 경배한다.’는 뜻이다. 어린 예수와 함께 있는 성모 마리아에게 두 손을 모아 경배하는 두 여인을 그린 종교적인 그림으로, 고갱은 서양 미술의 대표적 아이콘인 성모 마리아를 재해석하였다. 그림 속의 마리아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타히티 여인이 허리에 두르는 전통 의상을 걸치고 어린 예수를 목말 태우고 있다. 왼쪽에는 노란색 날개를 가진 천사와 타히티 여인들이 서 있다. 이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장면과 같은 전체적인 구도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문화의 도상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고갱은 문명에 노출되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표현하고자 그들의 모습을 타히티 원주민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인류의 근원을 타락한 서양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인 남태평양 타히티 원주민에게서 찾고자 하였다.

(아) 나는 북관에 혼자 앉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드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데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 씨 어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쓸는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자) 1961년 미국에서 심장병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주로 모여 살던 빈민촌인 로세토 마을의 55~64세 사이 인구 가운데 심장병으로 사망한 비율이 영(0)에 가깝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로세토 사람들의 생활은 기름진 음식과 음주, 흡연에 매우 열악한 노동 조건까지 의학적으로는 심장에 좋지 않은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이들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밝혀낸 원인은 공동체 문화에 있었다. 로세토 마을에는 상호 존중과 협동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웃끼리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대소사를 함께 해 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한 것이다. 로세토 효과는 건강 부분에만 그치지 않았다. 연구가 진행되던 시기에 이 지역은 범죄율도 영(0)이었고, 대학 진학률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사례 덕분에 미국 사회에서는 계층 간 갈등, 치안 등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에 있어 공동체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고향을 잃어버린 인물들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라)의 인물들이 고향에 부여했던 의미와 이들이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된 원인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바)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정씨와 제시문 (마)의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생각이 다른 이유를 서술하고,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사)의 고갱의 사례를 토대로 제시해 보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에 나타난 나와 의원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설명하고, 공동체 문화 형성의 조건과 효과를 제시문 (아)와 제시문 (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